

현대 패션 룩(Fashion Look)에 표현된 성(性) 정체성

이 연 희 · 김 영 인^{†*}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Gender Identity Expressed in Contemporary Fashion

Youn-Hee Lee and Young-In Kim^{†*}

Hanyang University · Yonsei University*

(2005. 7. 1. 접수 : 2005. 9. 3. 채택)

Abstract

This study purposes to examine the background of the sexual concept and femininity, masculinity and gender role in the fields of social psychology and cultural anthropology and investigate the traditional gender role and the fashion's changes according to its role and the examples of the masculinity and femininity expressed in the contemporary fashion and finally analyze the gender identity expressed in fashion. The image changes which appeared in the modern fashion can be considered to be Masculine Look, Garconne Look, Feminine Look, Unisex Look, Androgynous Look and Genderless Look. The Garconne Look caused lots of changes to masculinity in the 1920's along with the changes of femininity. With the effect of feminism, many females wore clothing which had been thought as male's clothing by the appearance of Masculine Look. The major formation reason of Unisex Look can be regarded as the attitude change of the society toward to females and a meaning which doesn't want the differences of the distinction of gender to appear any longer as a characteristic external factor is implied. Androgynous Look which appeared in the 1980's means the integration of femininity and masculinity which is the same meaning with 'androgyny' in itself. Not denying its gender characteristics individually, the Androgynous Look means that women aim at the masculine image in men's clothing or men do at the feminine image in women's clothing. Genderless Look can be considered to a look with a notion to wear clothing freely even in fashion transcending the border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differentiated socially and culturally.

Key words: gender identity(젠더정체성), gender role(성역할), unisex look(유니섹스룩), androgynous look(앤드로지너스룩), genderless look(젠더리스룩).

I. 서론

1. 연구의 배경

트렌드 분석 전문가 페이스 팝콘(Faith Popcorn)은

그녀의 저서 '클릭 미래속으로'에서 뉴밀레니엄을 위한 트렌드 17가지¹⁾를 제시하면서 21세기의 다문화적인 현상을 표현하였다. 그 중, 여성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마케팅도 계급 서열 모델로부터 인간관계 모델로 변화한다

[†] 교신저자 E-mail : yonngin@yonsci.ac.kr

1) 페이스 팝콘, 리즈 마리폴드, *클릭 미래 속으로*, 김영신, 조은정 역 (서울: 21세기북스, 1998), p. 19.

는 ‘여성적인 사고 트렌드’와 남성들이 전통적인 역할을 거부하고 그들의 자유를 만끽하며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남성해방(Mancipation) 트렌드’는 현대 사회의 성(性) 역할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다.

국내에서도 17~39세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2004년 우리 시대 남녀의 조용한 혁명’으로 명명한 소비자 분석 보고서²⁾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남성의 67%, 여성의 57%가 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을 탈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기획은 이를 각각 ‘미스티 뷰티(Mr. Beauty)’와 ‘미즈 스트롱(Ms. Strong)’ 그룹으로 명명하고 남녀 성 역할 변화는 더욱 일반화될 것이므로 이에 따른 마케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와 같이 21세기는 과학과 이성, 지식과 정보로 대표되는 세계로 사회와 삶의 영역에서 근력이나 힘으로 대변되던 남성성의 영역이 점점 축소되고 소프트한 여성성이 확대되어 가는 흐름을 맞고 있다. 영국의 시인 콜리지(Samuel Taylor Coleridge)는 “위대한 정신은 남녀 양성을 겸비하고 있다.”³⁾고 하여 특정성이 아닌 여성성과 남성성의 균형적인 시각과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였다. 이제는 성적인 특성을 따로 구분하여 생각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심리학이나 사회학적 측면에서도 남성, 여성을 분리하기보다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슴속에 함께 공유하고 있는 남성성과 여성성 즉, 성별에 관계없이 존재하고 있는 양성성을 잘 활용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므로 패션에 있어서도 이러한 성 역할의 변화 현상을 인식하고 그 의미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2. 연구의 목적

전통적으로 어떤 사회나 문화에서 남녀의 성역할은 시대 상황과 태어난 국가, 종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지언정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남성은 외부 지향적 부문에, 여성은 내부지향적 부문에 특화되어 왔다. 의복은 그 시대와 문화를 표현하는 대표적 양식으

로 오랫동안 전통이나 관습에 의하여 성(性)에 따라 구별되어 착용되었고, 특히 성 역할을 인식하는 뚜렷한 대상이었다. 의복에서 성의 구분은 오랜 기간 동안 남녀의 역할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는 것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온 것처럼 의복에 의하여 지속되어왔다.

21세기의 문화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문화가 공존하며, 융합되고 조화를 이루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패션 분야에서도 전통적인 성의 역할 변화와 함께 남녀의 복식이 혼합되어 다양한 패션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세기 초부터의 패션 역사를 살펴보면 남성성과 여성성이 만나는 접점은 줄곧 있어왔다. 여성성을 강조하는 코르셋으로부터의 해방과 함께 나타났던 가르송느 룩(Garconne Look)을 시초로, 페미니즘의 이념을 토대로 한 70년대 유니섹스 룩(Unisex Look), 남성성과 여성성의 공존을 내포한 80년대의 앤드로지너스 룩(Androgynous Look) 등이 그것이다. 또한 1990년대 이후 남성들의 감성, 직업 영역, 일하는 방식 등 사회의 기준들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다양해지면서 나타난 변화로 메트로섹슈얼(metrosexual)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경계탈 버린 젠더리스 룩(Genderless Look)의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성의 역할과 그 역할에 따른 패션의 변화와 패션에 표현된 남성성과 여성성의 사례를 찾아보고 시대 변화에 따라 패션에 표현된 성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성의 개념 및 여성성, 남성성 등, 성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사회 심리학적, 문화 인류학 등의 관련 분야의 문헌 및 선행 연구들을 조사하며, 패션 룩(look)에 나타난 성 정체성 연구는 관련 문헌과 패션 잡지, 관련 웹 사이트 등에서 추출된 사진 자료 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로 이루어진다.

II. 성의 개념 및 정체성

1. 성의 개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性)이라는 용어는 남녀를 구분할 때에 사용되는 영문의 섹스(sex)와 젠

2) “거리에서 쓰는 라이브 마케팅보고서”, Vol. 2, 우리시대 남녀의 조용한 혁명 Mr. Beauty & Ms. Strong (서울: 파란통신, 2004).

3) 정부효, *피할 수 없었다면 즐겨라* (서울: 도서출판 무한, 2003), p. 203.

더(gender)라는 용어들을 번역한 단어이다. 보통 생물학적인 면에서 남녀를 구분할 경우에 섹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구분된 선천적인 성별을 뜻한다. 어문상 섹스라는 영문 단어는 '자르다'(to cut or divide)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라틴어 동사(secare)에서 유래하였다.⁴⁾ 플라톤의 향연(Symposium)에 언급되는 아리스토파네스(Aristophanes)의 이야기로부터 이러한 의미를 쉽게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심리학자 스톨러(R. J. Stoller)에 따르면, 섹스는 염색체, 외부 생식기, 생식선, 내부 생식기, 호르몬 상태, 제2차 성징, 뇌 등을 포함하는 생물학적 구성요소를 지칭한다.⁵⁾ 즉 일반적으로 섹스는 성기를 비롯하여 그 밖에 남성과 여성에게 부과되는 신체적 특징인 생물학적 의미의 성을 포괄하는 것이다.

젠더(gender)는 남자나 여자나에 대한 심리적·사회적·문화적 영역으로 정의된다. 이는 개인이 출생한 이후에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인 환경에 의해 학습되어진 후천적으로 주어진 남녀의 특성을 의미한다. 철학이나 언어학에서만 사용되었던 이 용어를 심리학에서는 1955년 존 머니(John Money)가 외부 생식기가 애매한 상태로 태어난 사람들의 남성 또는 여성적인 상태를 기술하면서 적용시키기 시작하였다.⁶⁾ 섹스는 개인의 남성, 여성 또는 중성으로서의 개인의

신분을 의미하고, 젠더는 신체적이고 행동적인 기준에 따른 개인의 남성 또는 여성적인 특성을 의미하는 방향으로 구분되어 사용된다.

사회학에서도 생물학적 성(sex)이라는 용어를 해부학적, 생리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성별로 나타나는 신체적 차이를 일컬으며, 사회적 성(gender)은 양성간의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지칭한다.⁷⁾ 사회적 성은 사회적으로 구축된 남성다움 또는 여성스러움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 사회적 성은 반드시 한 개인의 생물학적 성의 직접적인 산물일 필요는 없다.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의 차이는 근본적인 자질인데, 남녀간에 나타나는 여러 차이는 그 연원이 생물학적 요소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표 1>은 앞에서 논의된 섹스와 젠더의 개념을 정리한 것이다.

2. 성 역할과 성 정체성

1) 남성성과 여성성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누구나 남성(male) 또는 여성(female)으로 태어난다. 이 생물학적 성차가 남성다움·여성다움의 성적 특성을 형성하고 남녀의 성 역할을 구분한다고 생물학적 결정론자들은 말한다. 반면에 사회화론자들은 이와 같은 성별 고정 관념은 편견

<표 1> 섹스와 젠더의 개념

학자	개념	Sex	Gender
앤서니 기드슨 Anthony Giddens (사회학)		생물학적 성 해부학적, 생리학적 관점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차이	사회적 성 양성간의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
스톨러 R. J. Stoller (심리학)		생물학적 구성요소 성기를 비롯하여 염색체, 외부 생식기, 생식선, 내부 생식기, 호르몬 상태, 제2차 성징, 뇌 등 남성과 여성에게 부과되는 신체적 특징은 포괄하는 것	남자 여자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 개인적 사회적 젠더 정체성을 포함 다차원적인 사회 적 구성물의 의미체계
존 머니 (John Money) (심리학)		개인의 남성, 여성 또는 중성으로서의 개 인의 신분을 의미	신체적이고 행동적인 기준에 따른 개인의 남성 또는 여성적인 특성을 의미

4) 윤가연, *성문화와 심리* (서울: 학지사, 1998), p. 15.

5) 사브리나 P. 라멧, *여자 남자 그리고 제3의 성 젠더역전과 젠더문화*, 최노영숙 역 (서울: 당대, 2001), p. 50.

6) 윤가연, *Op. cit.*, p. 17.

7) 앤서니 기드슨, *현대 사회학*, 김미숙 외 6인 역 (서울: 을유문화사, 2001), p. 125.

이고 후천적 사회화의 소산일 뿐이라고 보는 성 차별 없는 사회화를 제안하고 있다.⁸⁾

심리학자 칼 G. 융(Karl G. Jung)은 그의 분석 심리학을 통해 인간의 마음속에는 여성성과 남성성인 아니마(anima)와 아니무스(animus)가 존재한다고 하였다.⁹⁾ 아니마는 남성의 마음속에 있는 여성적 심리 경향이 인격화한 것으로 막연한 느낌이나 기분, 예견적인 육감, 비합리적인 것에 대한 감수성, 개인적인 사랑의 능력, 자연에 대한 감정, 그리고 무의식 등이 바로 이러한 심리경향이다. 또한 여성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남성성으로 표현되는 아니무스는 여성의 정신적 기반을 튼튼히 해주고, 외적인 연약함을 보상할 수 있게 하는 보이지 않는 내적인 힘을 준다고 하며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지적을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며, 남성다움의 특징으로 도구적, 능동적, 활동적, 공격적, 지배적 등을, 여성다움은 장식적, 이해적, 수동적, 순종적, 관계 중심적 등을 특징으로 여기고 있다.¹⁰⁾ 아담과 이브의 창조¹¹⁾ 이래 최근까지 '남성=문화, 여성=자연'이라는 양분법과 또 하늘의 신 우라노스(Uranus)와 대지의 여신 가이아(Gaea)등 과 같은 신화를 통해 남성은 하늘, 여성은 대지로 상징되어 오랜 세월동안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우월적인 위치를 누려왔다. 이러한 남성에 대한 인식에 반하여 수세기 동안 여성은 수동적인 존재이며 이분적 성별 체계의 의해 남성에게 종속불가피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2) 전통적인 성 역할과 성 정체성

생물학적으로 개인이 남성이거나 아니면 여성인가를 나타낼 때에는 성적인 정체성 또는 주체성(sexual identity)이라는 용어를 적용시키며, 한 개인이 소속된 사회 문화권에 통용되는 남성다움, 남성성(masculi-

nity)이나 여성다움, 여성성(femininity)을 나타낼 때에는 정신 성적인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이라는 용어가 적용된다.¹²⁾ 정체성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누구라고 여기는지 또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¹³⁾ 개인의 정신적인 성적 주체성의 형성은 환경으로부터 특히, 부모와 또래들과의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인류가 경험한 가장 오래된 문화적 경험은 바로 '남자 되기'와 '여자 되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심리학자 머드(Mead)의 자아형성이론에 의하면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한 사회화 과정은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 '엄마놀이'나 '아빠놀이' 등을 통해서 엄마와 아빠 같은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s)의 역할을 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놀이단계가 지나 게임단계(game stage)에 이르면 아이들은 일반화된 타자(generalized others)의 역할까지 인지하게 되며, 자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뿐 아니라 전체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기대 즉, 역할 취하기(role-taking)를 통해 자신에게 기대되는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머드의 이론은 놀이와 게임을 통한 사회화 과정이 아동의 자아 형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있으며, 이와 같이 남녀별로 차이가 나는 장난감의 형태, 게임 및 놀이는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기대어지는 성 역할을 학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¹⁴⁾ 즉, 아이들은 이를 통해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능력과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전통적인 성 역할과 차별성은 산업혁명 이후 여성에 중심의 가부장제의 부르주아 계급에서 확실하게 생겨났다. 가부장제는 노동, 교육, 문화 등 사회활동 영역 전반에 걸쳐 만연되어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가정에서의 종속적인 여성의 삶, 가사, 육아, 성 관계

8) 일리노이 E. 매코비, *성차의 형성과정*, 정세화 오은경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3), p. 3.

9) 칼 G. 융 외, *인간과 상징*, 이윤기 역 (서울: 도서출판 열린책들, 1996), p. 250.

10) 정효찬, "광고에 표현된 성 정체성 고정 관념 파괴에 관한 연구-1995년 이후의 국내 TV 광고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1) '주 하나님여 남자에게서 뵈어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오....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창세기 2장 21절-23절.

12) 윤가연, *Op. cit.*, p. 17.

13) 앤서니 기드슨, *Op. cit.*, p. 63.

14) 양미연, "사이버스페이스에 나타난 여성성과 남성성"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p. 8.

를 포함하는 개념이었으며, 여성의 경제적 의존 등 남성간의 사회관계에 기초한 많은 제도들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적 요소로 지적된다¹⁵⁾.

남성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며 생산이 이루어지는 사회라는 공적인 영역에 속하게 되며 여성은 아내와 어머니인 사적인 영역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관념이 철저히 사회적 우월과 열등의 표시로 대립되었으며 남성성은 남성이 지배하게 된 사회에 대해 주체로서 권력의 상징, 육체보다는 이성적 상징으로 보았으며, 여성들은 남성들이 이미 규정해 놓은 어머니, 처녀, 창녀, 마녀와 같은 상투형(stereotype)으로 재현되었으며¹⁶⁾, 육체적, 의존적, 감정적인 여성성으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성 역할에 대한 고정적 정체성은 1980년대에 들어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는 '정치적 행동의 변화'를 주장한 페미니즘의 오랜 역사적 투쟁에서 초기에 지향한 성별 평등 운동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3) 패션에 표현된 성 정체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젠더 정체성은 개인적 정체성이나 자기 이미지에 대한 사적 경험을 포괄하며, 사회적 정체성은 성별화 된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또는 민주화를 지칭한다. 문화는 한 사회 내에서 한 성원 혹은 한 집단의 생활양식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예술, 문학, 회화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어떻게 옷을 입는지, 그들의 풍습은 어떤지, 직업의 유형은 어떠한지 종교 의식은 어떠한지 등의 모두 문화의 요소들이다¹⁷⁾.

대부분의 문화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사회적 관습 즉, 옷차림, 교육방식, 기대되는 바의 행위양식, 언어 등에 이르기까지 남녀를 구분하는 규범, 가치관 등이 정교하게 발달되어 있다. 그러므로 남자 또는 여자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행위 및 태도를 학습시키는 성역할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성장된다.

복식에서도 성별 및 역할에 따라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가 정립되어 왔으며 성별 차이에 따른 전통적인 복식에는 성 역할과 행동에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성성과 남성성을 의미하는 의복은 문화에서 문화로 다양하게 변하며 각 문화가 생산해 내는 성의 전형적인 고정 관념에 의해 의복으로 표현되고 있다. 서구에서는 오랜 기간 여성은 스커트를, 남성은 바지를 입었는데 스커트는 여성의 역할을 상징하여 즉, 온화하고 의존적이며 비공격적인 것이며, 반대로 남자의 바지는 남성적이며 힘이 세고 독립적이며 공격적이라는 여성과 반대적 특성을 나타낸다. 또 어린이들은 성장하면서 이러한 의복의 구분을 배우며 의복을 사회화의 도구로서 이용되었다.¹⁸⁾

서양의 복식사에 의하면 초기 역사에는 남녀 모두 치마 형태의 의복을 착용하였다. 그러나 12세기 후반 중세 유럽에서 비롯된 갑옷의 개발 이후 다리가 갈라진 형태의 바지가 오랜 동안 남성들의 것으로 전제해 내려왔으며 중세 시대의 갑옷은 외형적 정교함과 복합적인 화려함, 초자연적인 힘의 추상적 이미지를 지니고 남성 신체의 이름나움을 고양시키게 디자인되었다.¹⁹⁾ 갑옷을 착용하기 위하여 금속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는 속옷이 필요하였는데, 그에 필요한 정교한 재단법이 이 시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 남성과 여성의 의복이 확실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남성은 다리가 갈라진 형태의 타이즈, 바지를 착용하게 되었고, 여성은 허리를 가늘게 조이고 부피가 큰 긴 스커트를 착용하게 되면서 복식의 성 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르네상스 시기에는 남성이 어깨에 과도한 패드를 대어 역삼각형의 상체를 만들기 위하여 부피가 큰 푸르푸엥(pouppon)과 하의로는 타이즈 형태의 쇼오즈(chausscs)를 착용하면서 복식의 성 차는 더욱 두드러졌다. 프랑스 혁명과 함께 18세기말과 19세기 초에 이르러 젠더의 구분이 더욱 명확해지면서 남성복은 절제된 스타일로 변화되었고 여성복은 상

15) 김정란, "푸코 권력 이론의 여성 해방적 함의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p. 23-27.

16) 이호경, "젠더 분석틀로 본 브레히트의 여성들"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p. 4.

17) 앤서니 기드슨, *Op. cit.*, p. 63.

18) 이민경, 한명숙, "유니섹스 모드에 나타난 Dualism(이원론)의 현상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3권 2호 (1995), p. 283.

19) 앤 홀랜드, *의복과 성(性)*, 채금석 역 (서울: 경춘사, 1996), p. 61.

식이 증가하고 화려해졌다.

Ⅲ. Fashion Look에 나타난 성정체성 분석

현대의 패션 디자이너들의 성의 경계 없이 남성성과 여성성이 공존하는 복식으로 자유와 즐거움을 표현하는 다양하게 표현하게 되었다. 과거 성역할의 고정관념과 전통적 성역할 개념은 변화하기 시작하여, 이성 간에 다른 것으로 구분되었던 성역할 고정관념은 매우 임의적이며 한계가 있는 개념이라 보게 되었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성의 차이라는 기본적 가정이 사라지고 성별에 기초를 두지 않는 개인의 차이를 강조하는 새로운 가정이 대두되면서 각 성에 존재하는 양성적 특성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심리 경향을 배경으로 패션에 있어서도 여성이 입어야 하는 옷, 남성이 입어야 하는 옷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두 가지 성의 특징을 담아내거나 그 경계를 허물어버린 새롭고 다양한 차원의 룩(look)²⁰⁾이 등장하였다. 본 장에서는 변화하여온 사회 문화 속에서 그 배경과 의미와 함께 다양하게 표출되었던 성의 정체성이 패션 특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시대적 흐름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1. 매스쿨린 룩

매스쿨린 룩(masculine look)은 메니쉬 룩(manish look)이라고도 하며 여성들이 전형적인 남성 복장인 바지를 착용한 남성 이미지의 여성 복장을 의미한다. 여성 해방 운동은 복식에 나타난 성적 특성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매스쿨린 룩은 그 중 하나이다. 제인 그로브(Jane Grove)는 20세기 복식의 혁명 중의 하나는 성의 혁명으로서 여성이 남성 스타일을 수용함으로써 전통적인 여성의 가시적 이미지에 도전한다고²¹⁾ 하였다.

바지는 과거 중세시대 이후 오랜 동안 남성들의 소유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16세기 이후의 상류 사

회에서는 바지는 방탕한 여자들이 남성들을 유혹하기 위해 착용하는 것으로 안지되었으며, 하위 직업이라 여겨졌던 여자 광부, 이부, 농부와 무용수, 곡예사, 여배우, 가수들에게 위치지는 의복이었다.²²⁾

남성의 바지를 최초로 착용했던 여성은 1420년 경 십자군 전쟁 당시의 잔 다르크(Joan of Arc)라고 보여진다. 앙그르(Jean Auguste Dominique Ingres)의 그림(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잔 다르크는 기사복의 바지위에 스커트를 착용하였으며, 그 당시 남녀의 분리라는 철저한 규율을 깨고 가려져 있던 여성의 다리를 보여주는 기사 복장을 착용하였다. 그녀의 바지 차림 기사복은 갑옷 속에 내재된 정치적인 힘과 정신세계를 내포하였으며 남성 복장이 여성에게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불러 일으켰지만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이데올로기에서는 결국 정신적으로 야심에 불타는 병든 모습으로 보이게 하였으며, 이단의 마녀로 취급되어 피멸로 이끌었다.

잔 다르크 이후, 프랑스의 여류 소설가 조르주 상드(George Sand, 1804-1876)는 여성 해방과 자유 연애를 주창하였으며 이 당시 상상할 수도 없는 남성 전용물인 바지를 즐겨 입었으며, 이러한 모습이 패션의 역사에 있어서는 최초의 남장 차림으로 기록되어 있다.²³⁾ 또한 아멜리아 블룸머(Amelia Bloomer)여사는 1850년 여성 의상 개혁 운동을 전개하면서 몸을 조이는 크리놀린 스타일을 벗어버리고 자전거 타기에 편한 블룸머(Bloomer) 스타일의 바지 형태(그림 2)를 착용하여 여성도 남성과 평등하게 바지를 입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시켜 주었다.²⁴⁾

그 후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바지나 셔츠는 작업복이나 운동복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1916년 입대하는 남성들이 늘어나면서 병원, 농장에서 뿐만 아니라 군수품 공장, 그리고 교통과 화학 산업 같은 직종에도 여성들의 참여가 장려되었고, 이는 작업복의 새로운 발전을 가져왔으며, 여성들의 바지 착용을 일반화시켰다.²⁵⁾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바지 차림

20) 외관, 스타일, 전체적인 모양을 단적으로 표현한 단어. 소재, 색채 무늬, 디테일 등을 포함하여 그 의복의 대표적 특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로서 실루엣과 같은 의미로도 사용. *패션용어사전*, (서울: 경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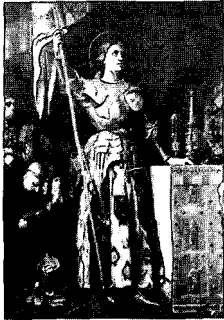
21) 김민자, *복식미학 강의 7* *복식미학 옆보기*, 제인용 (서울: 교문사, 2004), p. 100.

22) 앤 홀랜더, *Op. cit.*, p. 70.

23) 김민자, *Op. cit.*, (2004), p. 126.

24) Martin, Richard. *All American : A Sportswear Tradition* (New York, 1985), p. 60.

25) 밸러리 멘데스, 에이미드 라 헤이, *20세기 패션*, 김정은 역 (서울: 시공사, 2003), p. 57.



〈그림 1〉 잔 다르크
Ingres, 1854.



〈그림 2〉 Bloomer suit
All American.



〈그림 3〉 Straight box style two-piece.

이나 스트레이트 박스 스타일의 투피스 수트(그림 3)를 착용하였으며, 가브리엘 샤넬(Gabrielle Chanel)은 일하는 여성을 위해 세일러 스커트(sailor skirt)와 남성적인 분위기의 풀오버(pullover)를 제안하여 메스큘린 룩을 선도하였으며 이는 이후 가르손느 룩으로 연결된다.

2. 가르손느 룩

세계 1차 대전 직후 여성들이 여성스러운 스타일보다는 가슴을 납작하게 하고 허리곡선을 완하시킨 스트레이트 박스 스타일을 선호하면서 복식의 남성화가 이루어져 보이쉬 스타일(Boyish Style)이 유행되었다. 영국에서는 1918년 일부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지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에서는 1920년대에 여성의 참정권이 부여되었고 정치적, 경제적 지위 향상, 남녀 평등과 자유 연애 사상 등이 결합되어 여성들의

패션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1920년대의 보이쉬 스타일은 '가르손느 룩(Garconne Look)' 또는 '플래퍼 룩(Flapper Look)' 이라고도 불린다. 가르손느 룩은 그 당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빅토르 마르그리트(Victor Marguerite)의 소설 '라 가르손느(La Garconne)'에서 파생되었는데 표지(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독립적인 삶을 찾아가는 젊은 여성 주인공이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남성의 재킷과 타이틀을 입고 있는 모습에서 따온 것이다. 그 시대에는 급진적인 사회, 경제, 정치적 자유를 실제로 경험한 여성이 거의 없었으므로 가르손느 룩은 현실적이기 보다는 이상적인 패션이었다.²⁶⁾

소년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는 플래퍼는 '말괄량이'라는 뜻으로 특히 1920년대에 자유를 찾아 복장이나 행동 등에서 관습을 깨뜨린 젊은 여성을 일컫는다. 특히 복식에서는 유행에 열중한 약간 엉뚱한 소녀를 말한다²⁷⁾. 플래퍼는 깃이 없고 소매 없는 짧은 드레스가 특징이며, 보브(bob), 싱글(single), 이튼 크롭(Eton Crop) 등과 같은 짧은 헤어스타일에 빨간 립스틱을 발라 그 시대로는 전위적인 복식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6). 당시 짧은 머리에는 클로슈(cloche)(그림 7) 모자가 필수적이었다. 루이스 부룩스(Louise Brooks)와 글로리아 스완슨(Gloria Swanson)같은 스타가 20년대의 인기 플래퍼이다.

가르손느 룩은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해지기를 원하는 내면적인 의향을 나타낸 것으로, 이런 의향은 여성 복식을 더욱 기능적으로 변하게 하였으며 2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남장을 모방하였지만 주름이나 리본 등으로 여성적 이미지를 가미한 소년 같은 여성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²⁸⁾. 마들렌느 비오네(Madeleine Vionnet)가 대표적 디자이너이다.

1980년대 이후 양성화 트렌드와 관련되어 제르다 부스뎀(Gerda Buxbaum)은 1920년대의 디자이너들은 성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자유 수트(freedom suit)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폭 넓게 하기 위한 즉, 양성성을 위한 성의 교차적 의미로 디자인하였다고 해석하고 있다.²⁹⁾ 그레타 가르

26) 벨러리 멘테스, 에이미드 라 헤이, *Op. cit.*, p.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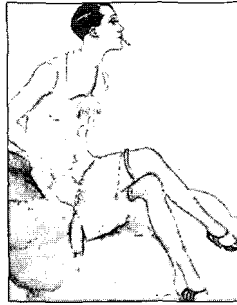
27) 정홍숙, *서양복식 문화사* (서울: 교문사, 1997), p. 166.

28) 송명진, 채금석, "현대 남성패션에 나타난 성정체성의 표현 양상," *한국의류학회지* 제25권 2호 (2001), p. 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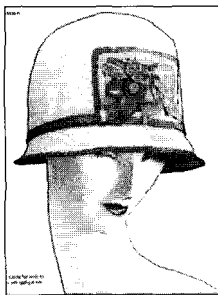
29) Gerda Buxbaum, *Icon of Fashion, The 20th Century* (prestel Verlag, Munich, London, New York, 1999), p. 32.



〈그림 4〉 La Garçonne의 표지.



〈그림 5〉 Flapper Look.



〈그림 6〉 Cloche het (1925).



〈그림 7〉 Marlene Dietrich (1930).

보(Greta garbo)와 바를란 디트리히(Marlene Dietrich)(그림 7)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겸비한 독특한 모델이었으며, 많은 여성들 사이에 남성적인 이미지 복식을 유행시키는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3. 페미닌 룩

1930년대는 전 세계에 경제공황과 대량실업의 여파를 가져온 뉴욕 주식시장의 붕괴에 따른 불황과 현실 도피의 시기였다. 이러한 불황속에서 많은 디자이너들은 값이 저렴한 기성복을 도입하여 기성복시장의 문을 열었다. 이 시기의 디자이너들은 1920년대의 가르손느 룩을 버리고 여성의 인체미를 살리는 부드럽고 입체감이 있는 의복을 발표하였다³⁰⁾. 가슴은 납작하게 하던 유행이 지나고 다시 브레지어와 가미운 뼈대와 끈으로 조이는 코르셋, 그리고 신축성 있는 속옷에 의해 허리선이 강조되는 여성적 페미닌룩(feminine Look)이 다시 등장하였다.

‘여성적(feminine)’이라는 의미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여성답다’는 의미도 사회 문화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여성성을 의미하는 ‘femininity’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특히 남성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여성적 특질을 가리키는데 주로 쓰인다고³¹⁾ 한다. 바로크와 로코코 시대에 여성들이 착용했던 크리놀린 스타일의 스커트, 화장과 몸치장, 화려하게 장식되었거나, 몸을 구속시키거나 변형시키는 속옷, 하이힐, 신체 장식과 장신구 등이 여성성의 대표적 코드로 볼 수 있으며,³²⁾ 색채나 디자인 등이 남성적 요소가 배제된, 보다 여성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랑스럽고 귀여운, 우아한’ 이미지를 만드는 요소로 표현된다.

1930년대 후반부터 19세기 빅토리아풍이 유행되면서 많은 양의 실크와 레이슬을 사용한 드레스들이 패션디자이너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로맨틱한 분위기를 내기위한 코르사주나 꽃장식, 목걸이, 팔찌 등이 사용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7년 크리스찬 디오르가 발표한 뉴 룩(New Look)(그림 8, 9)은 19세기 중반 드레스의 가느다란 허리와 여성의 가슴을 강조하고 넓은 스커트를 부활시킨 페미닌 룩의 대표적인 예이다. 페미닌 룩은 싱숙하고 우아한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엘레강스 룩(그림 10)과 어리고 낭만적인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로맨틱 룩, 성적 매력을 강조하는 섹시 룩(그림 11) 등으로 꾸준히 디자이너들에 의해 제안되고 있다.



〈그림 8〉 Christian Dior New Look (1947).



〈그림 9〉 New Look (1950년대).

30) 벨러리 네테스, 에이미드 라 헤이, *Op. cit.*, p. 136.

31) *Longman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 Culture* (Addison Wesley Longman, 1998).

32) 최현숙, "패션에 표현된 전통적 페미니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여성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pp. 13-21.



〈그림 10〉 Cecil Beaton (1948).



〈그림 11〉 D&G (2003 S/S).

4. 유니섹스 룩

‘유니섹스(unisex)’라는 용어는 사전적 의미로 ‘남녀 공용인, 남녀 구별이 없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오펜발트(Oldenwald)가 그의 저서 ‘사라진 성(The Disappearing Sex)’에서 기존의 성 개념과 다른 미래 지향적인 개념으로 처음 사용하였다.³³⁾ 유니섹스 룩(Unisex Look)은 1960년대 미국 내에서 유행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는 여성해방 운동이 사회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으며 히피 등의 청년 문화가 주장하는 사회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복장에서는 표현의 자유로움이 증가되었다.

히피들이 채용한 의상과 액세서리, 즉 남성들의 긴 머리와 꽃장식, 여성성을 배제한 여성들의 의복 스타일의 자유로운 코디네이션(그림 12)은 20세기 이후 처음으로 남녀가 동일한 의복형태를 착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청년 하위문화의 특징인

기존질서에 대한 반항은 합법적이고 전통적인 성의 질서에 대하여도 도전을 제기하면서, 의복의 외양에서 성의 혼란을 초래하며 유니섹스 룩으로 표현되었다.³⁴⁾ 유니섹스는 닌 섹스(Non sex), 모노섹스(Mono sex) 등의 의미로도 쓰이는데 하나라는 뜻의 모노(mono)는 의복에 있어서 ‘자유’라는 의미를 품고 있으며 성의 구분이 없을 때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의 심리가 의복을 통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³⁵⁾

유니섹스 룩의 주된 형성 원인은 여성에 대한 사회의 태도 변화와 함께 기계문명과 산업화에 의해 모든 것이 가속화된 사회에서 소외감과 허무감에 빠진 사람들이 동성이나 이성간의 경쟁 심리를 버리고 서로의 결속력과 동질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남녀 간의 동화현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블루진(blue jeans), T-셔츠, 캐주얼 자켓, 운동화 등 남녀가 비슷한 의상을 즐겨 입으면서, 의복을 통해 ‘여성미’와 ‘남성미’를 초월한, 그리고 이성의 요소를 공유한 현상으로서 성 개념을 탈피한 성의 혁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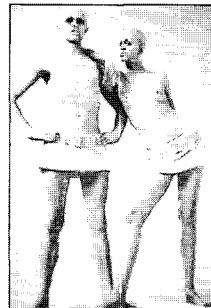
60년대를 대표한 패션 모델 트위기(그림 13)는 미소년과 같은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의 남성 수트를 착용하고 여러 잡지 기사에 등장하였으며, 유니섹스 룩의 선두적 역할을 하였던 루디 게른라이히(Rudi Gernreich)는 인간의 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존의 관념에서 탈피한 매우 개방적인 개념의 유니섹스 룩을 발표하기도 하였다(그림 14). 1977년 영화 애니홀(Anny Hall)에서 다이안 레인은 남성의 점음류인 배스트, Y-셔츠, 넥타이를 착용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그림 15), 이브



〈그림 12〉 히피의 모습.



〈그림 13〉 패션모델 (트위기).



〈그림 14〉 Rudi Gernreich (1970).



〈그림 15〉 영화Anny Hall (1977).

33) 김민자, *Op. cit.*, p. 105.

34) 김민자, “2차대전후 영국 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 *한국의유행학회지* 11권 2호, (1987), pp. 69-89.

35) 이만경, 한명숙, “유니섹스 모드에 나타난 Dualism(이원론)의 현상,” *복식문화연구* 3권 2호, (1995), p. 284.

생 로랑은 1960년대 후반 남성의 수트와 유사한 여성의 팬츠 수트를 발표하였다. 수트 안에 블라우스와 조끼를 입고 타이를 맨 모습은 남녀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유니섹스 룩이었으나, 이러한 디자인은 70년대를 거쳐 80년대로 오면서 앤드로지너스 룩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5. 앤드로지너스룩

패션 사전에 의하면 ‘앤드로지너스(androgyneous)’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단어로 ‘앤드로스(andro)’는 남자를, ‘지나케아(gynacea)’는 여자를 나타내며 남자와 여자의 특징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³⁶⁾ 벤더 젠든(Vender Zanden)은 양성성을 의미하는 ‘앤드로지니(androgyne)’를 ‘성의 고정 관념에 관계 없이 개인으로 하여금 전체로서의 인간의 감정과 역할 가능성을 표현하도록 허용하는 기준’이라고 설명하였다.³⁷⁾ 현대에서 앤드로지니는 유희적, 성적이기보다는 사회 문화적인 의미로 사용되며, 남녀의 심리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고 있다.

심리학자 산드라 뱀(Sandra Bem)도 양성성의 개념을 주장하였는데, 남성성이나 여성성의 양분화된 범주로 인간을 국한시키는 것은 위험하며, 남성이나 여성은 모두 남성적 특질과 동시에 여성적 특질을 함께 지닐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여성성과 남성성의 특질이 높은 사람을 양성적(androgyneous)이라 하였다.³⁸⁾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양성성의 의미를 ‘제3의성’이라고 표현하며, 인간은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특징을 같이 공유하고 있으며, 양성성 개발과 표현이 현대 다문화 시대를 대표할 것이라 하였다. 그러한 예로 패션에서도 앤드로지너스 룩(androgyneous Look)은 커다란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같이 앤드로지너스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조화되는 자유로운 감성이며, 앤드로지너스 룩은 자신의 성적 특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여성이 남성적인 옷차림으로 남성적인 이미지를 지향하거나 남성이

여성적인 옷차림으로 여성적인 이미지를 지향하며 자유롭게 양성을 융합시키는 표현방식이다.³⁹⁾ 즉, 서로의 성적 특성을 교차시켜 새로운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성을 초월한 자유로운 정신세계를 나타낸다. 또한 앤드로지너스 룩은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가 모두 느껴지는 양성적 이미지와 남녀 모두의 특성이 제거된 중성적 이미지를 띠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언섹스(non sex)한 특성을 지니는 유니섹스와 상통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전유물로서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복식을 서로 교류하여 작용함으로써 유니섹스와 차별화된다.⁴⁰⁾

이브 생 로랑이 1975년 발표한 여성의 팬츠 수트(그림 16)는 남성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양성을 내포하는 앤드로지너스 룩의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조지 아르마니(Giorgio Armani)도 강한 남성 이미지를 부드러운 여성성으로 중화시킨 남성용 수트의 앤드로지너스 룩(그림 17)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앤드로지너스 룩이 주류를 이루었던 1980년대에는 남성 패션에서는 여성성의 요소가 포함된 디자인은 성 도착(fetishism)이나 동성애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하위문화의 패션으로 취급받기도 하였다. 앤 홀랜더(Anne Hollander)는 “우리가 오늘날 새로운 앤드로지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남성성과 여성성 사이의 중간 지점을 향한 평행적인 움직임보다 메스퀼린 룩을 모방하고자 하는 여자들의 의식 작용이다.”라고 하여 1980년대 패션에서는 앤드로지너스에 대한 개념이 여성들의 메스퀼린 룩의 모방에 맞추어져 있음을 강조하기도 하였다.⁴¹⁾

그러나 90년대로 들어서서 남성 패션에도 여성적인 복식의 이미지가 과감하게 도입되었다. 훨씬 다양한 색조, 부드러운 재질감, 핫팬츠, 부드러운 신의 테일러드 슈트, 연약한 제스처 등은 여성을 방불케 하는 앤드로지너스 룩으로 발전되었으며 더 나아가 성의 경계를 없애버린 젠더리스 룩을 형성하고 있다.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는 앤드로지너스 룩을 표현

36) Charlotte Mankey Calasibetta, *Fairchild Dictionary of Fashion*,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 1988).

37) 강혜원, *의상사회심리*, (서울: 교문사, 1991) p. 186.

38) 김빈자, *Op. cit.*, p. 104.

39) 송명진, 채금석, *Op. cit.*, p.336.

40) 김경옥, 금기숙, *Op. cit.*, p.244.

41) Valerie Steele, *Paris Fashion: A Culture History* (1988), p. 230.



〈그림 16〉 Yves Saint Laurent (1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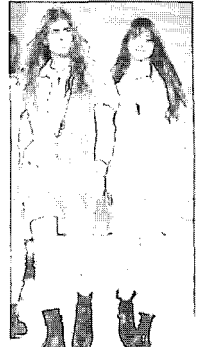
〈그림 17〉 Giorgio Armani (1984).



〈그림 18〉 Jean Paul Gaultier (1986 S/S).



〈그림 19〉 Dolce & Gabbana (1994 S/S).



〈그림 20〉 Anna Sui (1994 S/S).

하는 대표적 디자이너로 여성성과 남성성을 믹스한 다양한 디자인을 발표하여 왔다. 〈그림 18〉은 여성성을 전달하는 화장과 의복, 하이힐 등을 착용한 남성의 패션이다.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bana)는 흘러내리는 듯한 부드러운 소재의 니트와 여성의 점유물이라 여겨졌던 스커트를 남성복에 도입시켰으며(그림 19), 안나 수이(Anna Sui)는 사이버펑크(Cyberpunk)의 주제를 가졌던 콜렉션에서 네오 히피 스타일의 앤드로지너스 룩(그림 20)을 발표했다.

6. 젠더리스 룩

성의 구분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태어날 때 결정되는 생식적인 성(sex)과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어진 젠더(gender)로 구분되어진다. Gender라는 개념은 라틴어인 'genro'에서 파생되었으며, 성적인 의미와 관련된 부분은 라틴어 'genro'의 '생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⁴²⁾. '젠더리스(genderless)'라는 용어는 90년대 들어 국제적으로 성별을 지칭하는 용어로 권장되고 있는 젠더에서 파생된 말로서 '성의 구별이 없는' 또는 '중성적인'의 뜻을 내포 한다⁴³⁾. 남녀 복식의 경계불 허물어뜨린 중성적인 패션을 표방하는 젠더리스 룩(Genderless Look)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성 역할에 대한 반발이며 이는 곧 인간 내면 욕구의 표출이다. 유니섹스 룩이나 앤드로지너스 룩이 남성성을 지향한 여성의 욕구에 의한 표출이었다면 젠더리스 룩은 남성 해방

을 희망하는 남성들이 그들의 패션에 자유로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페이스 팝콘은 남성 해방을 미래의 남성 기준을 감성적이며 부드러움을 겸비한 모습으로 해석하였으며, 최근 21세기 남성 트렌드를 대표하는 '메트로섹슈얼(metrosexual)'은 이와 같은 새로운 남성상을 표현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영국의 작가 마크 심슨이 새로운 타입의 남성종족으로 붙여준 용어인 메트로섹슈얼은 세련된 미적 감각과 교양을 지닌 도시 남성을 뜻하며 과거 힘으로 대표되었던 획일적인 사교방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그들을 표현하고 솔직하게 기꺼이 여성스러움을 받아들여서는 열망을 가진 것으로 설명된다⁴⁴⁾. 남성들의 귀고리나 액세서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를 상징해 왔으나 이제는 개성적인 삶의 표현으로 인식되면서 패션으로까지 자리 잡고 있다. 지난 월드컵 때 형형색색 염색을 하고 액세서리로 치장한 선수들의 모습은 그들만의 개성으로 비쳐졌다. 데이빗 벅컴(David Beckham)은 대표적인 메트로섹슈얼로 빨간 메니큐어를 바르고 경기에 인하기도 하며, 스커트를 착용한 모습(그림 21)을 보여주기도 한다.

장 폴 고티에와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는 앤드로지너스 룩을 선도한 대표적 디자이너로서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성의 개념을 파괴한 듯한 개념의 젠더리스 룩의 디자인을 많이 발표하고 있다. 장 폴 고티에는 스스로도 여성의 점유물이라 여겨졌

42) 박미영, "현대패션에 표현된 젠더(Gender)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5권 4호 (2003), p. 325.

43) 성부호, *Op. cit.*, p. 110.

44) 마이클 플로리, *메트로섹슈얼 가이드북*, 김정미 역 (서울: 문학세계사, 2004), p. 12.



〈그림 21〉 David Beckham (1998).



〈그림 22〉 Jean Paul Gaultier (1997).



〈그림 25〉 Lala Croft.



〈그림 26〉 Alexander McQueen (2003).

던 스커트를 착용한 모습으로(그림 22) 대중들에게 어필하였으며, 남녀 성의 경계를 모호하게 표현하였다. 최근 여러 디자이너들에 의해 남성다운 느낌을 표현하는 남성 스커트가 발표, 착용되고 있으며(그림 23), 남성들만을 위한 스커트 전문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2001년 와일드 뷰티(wild beauty)라는 컨셉으로 강인하면서도 여성스러운 여성복과 부드러운 남성성을 겸한 남성복 디자인(그림 24)을 선보였다. 남성적이며 전투적 이미지는 와일드 뷰티의 대표적 여성상은 컴퓨터 게임의 주인공 공 라라 크로프트(Lala Croft)(그림 25)를 들 수 있으며 강인하고 여성스러운 모습을 겸비한 현대가 원하는 여성상이다. 〈그림 26〉은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작품으로 강하고 섹시한 여성의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다.

IV. 결 론

과거 다양한 문화 의식 속에서 이상적인 여성상



〈그림 23〉 Comme des Garçons (1998 A/W).



〈그림 24〉 Vivienne Westwood (2001).

과 이상적인 남성상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시대와 문화의 변화에 따른 성 정체성의 변화와 함께 패션에 표현된 변화를 패션 록을 통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근대이후 구 자본주의 사회의 남성상에 억압받았던 여성들은 여성해방, 페미니즘의 구호를 앞세우고 사회로의 진출을 희망하였으며 그러한 여성들의 의식과 함께 패션의 형태도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20세기 말 남성 패션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 패션의 변화는 여성들이 남성성을 모방하고 지향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이상적이라 여겨져 왔던 남성상도 그 시대를 대표하던 영화와 대중음악 대중매체를 통하여 변화를 겪고 있다.

시대에 따른 성 정체성의 변화와 함께 패션 록으로 표현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는 매스윌린 록으로 19세기말 여성해방 운동과 더불어 여성 복식에 등장한 기능적이고 활동적인 측면이 부각된 남성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었다. 조르주 상드와 아넬리아 볼루머 여사의 바지 차림이 여성도 남성과 평등하게 바지를 입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시켜 주었다. 두 번째는 가르송느 록으로 1920년대에 유행되었던 보이쉬 스타일이다. 가르송느 록도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해지기를 원하는 내면적인 의향을 나타낸 것으로, 이런 의향은 여성 복식을 더욱 기능적으로 변화하게 하였으며 2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남장을 모방하였지만 주름이나 리본 등의 여성적 이미지가 가미되어 소년 같은 여성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세 번째는 1940년대의 크리스찬 디오브의 뉴 록과 같이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페미닌 록으로 섹체나 디자인

등이 남성적 요소가 배제된, 보다 여성스러운, 사랑스럽고 귀여운, 우아한 등의 요소로 표현된 의복을 중점한다. 네 번째로는 1960년대 여성 자유의 외침과 함께 패션에 있어 유니섹스 룩을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유니섹스 룩은 젊은이들의 자유정신을 내포하고 있으며 블루진과 함께 더욱 확산되었으며, 보다 기능적이고 활동적인 남자들만의 의복이던 바지가 여성들에게 대중화되어 여성 복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다섯 번째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성복에서도 성의 구분을 허물어뜨리고자 하는 바람이 불었는데 앤드로지너스 룩에서 그러한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앤드로지너스 룩은 각자 자신의 성적 특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여성이 남성적인 옷차림새로 남성적인 이미지를 지향하거나 남성이 여성적인 옷차림새로 여성적인 이미지를 지향하며 자유롭게 융합시키는 표현 방식으로 서로의 성적 특성을 교차시켜 종래의 성 개념을 초월함으로써 색다른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이것은 1990년대 이르러서는 그 경향이 매우 깊어져 성의 경계를 버린 젠더리스 룩으로 이어졌다. 여섯 번째 젠더리스 룩은 여성에만 치우쳤던 패션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 남성들에게도 여성적인 느낌의 패션이 등장하였으나 메트로섹슈얼로 불리는 남성들의 복식 표현이 대표적이다. 현대의 남성은 남성 해방이라는 새로운 신조어와 함께 ‘남자답다’라는 접착고, 감정이 없는 것으로 대표되는 과거의 남성상을 벗어버리고, 여성스러운 감성과 부드러움을 지닌 남성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유니섹스 룩이나 앤드로지너스 룩이 남성성을 지향한 여성의 욕구에 의한 표현이었다면 젠더리스 룩은 남성해방을 희망하는 남성들의 의지의 표현이다. 현대의 남성과 여성은 가슴속에 함께 공유하고 있는 남성성과 여성성 즉, 성별에 관계없이 혼재하는 양성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적응력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경옥, 남기숙 (1998).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에 관한 연구.” 복식 36호.
- 김민자 (1987). “2차 대전 후 영국 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 *한국의류학회지* 11권 2호.
- 김민자 (2004). *복식미학 강의II, 복식미 옛보기*. 서울: 교문사.
- 김정란 (1996). “푸코 권력 이론의 여성 해방적 함의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마이클 플로커 (2003). *메트로섹슈얼 가이드북*. 김성미 역. 서울: 문학세계사.
- 박미령 (2003). “현대 패션에 표현된 젠더(Gender)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5권 4호.
- 멜리라 멘데스, 에이미드 라 헤이 (2003). *20세기 패션*. 김정은 역. 서울: 시공사.
- 사브리나 P. 라넷 (2001). *여자 남자 그리고 제3의 성 젠더역선과 젠더문화*. 서울: 당대.
- 송명진, 채금석 (2001). “현대 남성패션에 나타난 성 정체성의 표현양상.” *한국의류학회지* 제25권 2호.
- 양미연 (2000). “사이버스페이스에 나타난 여성성과 남성성.”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앤서니 기드슨 (2001). *현대 사회학*. 김미숙 외 6인 역. 서울: 을유문화사.
- 앤 홀랜드 (1996). *의복과 성(性)*. 채금석 역. 서울: 경춘사.
- 윤가연 (1998). *성문화와 심리*. 서울: 학지사.
- 이민경, 한명숙 (1995). “유니섹스 모드에 나타난 Dualism(이원론)의 현상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 3권 제 2호.
- 이호경 (2001). “젠더 분석틀로 본 그레히트의 여성들.”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일리노이 E. 매코비 (1983). *성차의 형성과정*. 정세화 오은경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정부호 (2003).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서울: 도서출판 무한.
- 정효찬 (2001). “광고에 표현된 성 정체성 고정 관념 파괴에 관한 연구-1995년 이후의 국내 TV 광고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홍숙 (1997). *성양복식 문화사*. 서울: 교문사.
- 최현숙 (2000). “패션에 표현된 전통적 페미니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여성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칸 G. 옹 외 (1996). *인간과 상징*. 이윤기 역. 서울: 도서출판 열린 책들.
- 페이스 콰콘 리즈 마리얼드 (1998). *클릭 미래속으로*. 김영신, 조은정 역. 서울: 21세기북스.

- 거리에서 쓰는 라이프 마케팅보고서 Vol. 2 (2004).
 “우리시대 남녀의 조용한 혁명 Mr. Beauty & Ms. Strong.” 서울: 파란통신.
- Baudot, Francois (1999). *A Century of Fashion*. Universe. New York.
- Bolton, Andrew (2003). *Bravehearts Man in Skirts*. London: V&A Publications.
- Buxbaum, Gerda (1999). *Icon of Fashion, The 20th Century*, Prestel Verlag. Munich, London, New York.
- Lussier, Suzanne. *Art Deco Fashion*. Bulfinch Press. Boston, New York.
- Martin, Richard (1985). *All American: A Sportswear Tradition*. New York: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 McDowell, Colin (2000). *Jean Paul Gaultier*. New York: Viking Studio.
- Mulvey, Kate and Richards, Melissa (1998). *Decades of Beauty*. Checkmark Books. New York.
- Steele, Valerie (1988), *Paris Fashion: A Culture History*.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atson, Linda (1999). *Twentieth Century Fashion*. Carlton Books. London.
- Wilcox, Claire (2004). *Vivienne Westwood*. London: V&A Publications.
- <http://www.pohangart.com/moogi007/art>